

『金剛三昧經』의 학파 소속성에

관한 몇가지 문제

李 萬(동국대)

신규택 교수의 주요논지는 『金剛三昧經』의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데로 禪宗關係의 전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원각경』과 같이 能觀의 心法과 所觀의 諸法이 모두 空하고 無相임을 교설한 점에서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학파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한 것이며, 『금강삼매경』은 화엄계통의 觀行으로 애용된 『화엄법계관』과 『화엄망진환원관』 계열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돌아가신 고 익진 교수가 원효 사상의 소속성을 논하면서, 여래장사상에 놓는 것을 굳이 거부하고 華嚴思想에 배속시켰는데, 이러한 까닭은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에 주목해서 그렇게 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찍이 필자가 예를 든 데로, 일본의 柳田聖山 교수는 『금강삼매경』을 禪經으로 보고, 이 경전이 禪佛敎의 頓悟思想을 설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水野弘元 교수는 達摩의 『理入事行論』에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을 소재로 『금강삼매경』의 “理入”과 “事入”에 관한 교설이 찬술되었음을 논증했고, 柳田聖山 교수도 水野 교수의 이런 입장을 수용했었지만, 그 후에 柳田 교수는, “『금강삼매경』을 근거로 해서 『속고승전』의 텍스트가 생기고 『楞伽師資記』의 「略辨大乘入道事行, 弟子

曇林序」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추이에 주목하고 싶다. 적어도 텍스트의 순위는 『금강삼매경』을 최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수정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남동신 교수는 『금강삼매경』 사상을 반야공관사상에 귀속시키는 한편으로, 이 경전이 뒷날 중국 禪宗의 성립사에서 禪宗 관계의 전적의 하나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경전의 내용을 놓고 그 귀속을 논하는 일은 쉽지 않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중국에서도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논정하고, 이렇게 관찰해서 사성제의 실다운 이치를 깨닫게 하며, 팔정도의 수행으로 번뇌를 멸하여 무여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成實論』의 소속을 놓고, 梁 나라의 法雲, 智藏 및 慧敏은 대승론이라 하고, 智義, 吉藏 및 우리 나라의 승랑은 소승론, 道璿과 元照는 일부는 대승론에 통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같이, 『금강삼매경』의 내용에는 대승불교의 표방인 空思想도 교설되어 있고, 화엄사상에서 내세우는 52위설도 들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法華經』에 등장하는 비유도 보이고, 『열반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며, 정토사상, 참회사상 및 유식사상 등에 관한 것 등 불교관계의 여러 사상들이 두루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견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교판을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다.